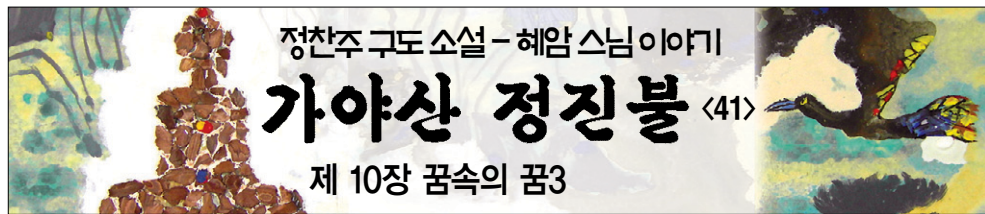


목마름은 물로 끌 수 있지만 마음 탈 땀 무엇으로 끌 수 있나?



정안주 구도소설-해암스님이야기
가야상 정진불 <41>
제 10장 꿈속의 꿈3

대연거사는 앞에 녹차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만큼 성법스님의 문수암 얘기에 빠져 있다가 겨우 한 마디를 했다.

“해암 큰스님께서서는 양말을 선물 받고 좋아하시던가요.”

“칭찬을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미소를 지으시며 답답하게 받아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면 문수암에서의 은사스님과 이를 동안이 가장 추억에 남습니다.”

대연거사가 더 물을 말이 없어 잠시 침묵하자, 성법스님이 시계를 보면서 양해를 구했다.

“절심 공양은 호국사에서 하시지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지금 시내로 나가봐야겠습니다. 공양간은 이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절을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호국사에서 하루 머물러도 좋지요.”
“아닙니다. 오늘 해인사로 가봐야 합니다.”

대연거사는 해인사로 가 원각스님과 함께 중봉암을 찾아보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었다. 해암스님이 48세 때 정진하였던 해인사 위쪽에 자리했던 토굴이 바로 중봉암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중봉암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에 불과했다. 1970년대 들어서 해인사저수지가 만들어지고 난 뒤,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봉암을 철거했던 것이다. 가야산 산길에 익숙한 사하촌의 약초꾼들마저 하나 둘 죽고, 중봉암 터가 울창한 숲에 가려져 그곳에서 실제로 정진하였던 원각스님 같은 수좌들도 위치만 대충 짐작하고 있을 뿐이었다.

대연거사는 호국사를 서둘러 떠나지는 않았다. 절심 공양을 하면서 풍양 틀니를 한 노스님을 만나 뜻밖에도 청담스님의 얘기를 들었다. 노스님은 절심공양 후 진주성을 산책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고백했다.

“청담스님의 속가 부인이 우리 고향 분이었어. 부인이 살아계신단말 올해로 94세쯤 되실 거야.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성은 차씨였어.”

노스님은 청담스님과 호국사와의 인연을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노스님이 포항삼아 축석루 쪽으로 갔으며 말했다. 노스님은 틀니가 문제가 있는지 말할 때마다 발음이 섰다.

“일제시대, 그러니까 청담스님께서 진주농고를 다녔지. 스님께서 처음으로 발심한 절이 이 호국사여.”
“그때 호국사에는 어떤 스님이 계셨습니까?”

“금강산 유점사에서 사셨던 포명(圃明)선사가 계셨지.”

노스님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는 입맛을 다시며 얘기했다. 진주농고 학생 청담이 호국사에 들러 샘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다. 포명선사가 지나가는 말로 “목마름이야 물로 다스릴 수 있지만 마음이 탈 때는 무엇으로 끌 수 있겠느냐”라고 던졌는데, 청담은 그 말에 걸려들었다.

포명선사가 던진 한 마디는 청담을 발심케 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청담은 그 말에서 헤어지지 못했다. 마침, 일본말을 사용해야 하고 일본교복을 입어야 하는 학교생활도, 궁핍한 가정생활도 만족스럽지 못한 때였다. 진주 시내에 밤이 되면 살벌한 공기가 감돌기도 했다. 실제로 청담도 방과 후에 ‘일본말 안 쓰기’ ‘일본교복 안 입기’ 등의 민족의식운동들

퍼기도 했다.

그래도 학생 청담의 발걸음은 늘 질로 향했다. 자신도 운수남자처럼 걸림 없는 자유인이 되고 싶었다. 더구나 친구 박생광은 1학년 때 용기를 내어 호국사로 입산까지 한 상태였다. 청담도 입산 출가하기로 작정하고 어머니에게 슬쩍 운을 뚫었다. 그날로 집안이 발각 뒤집혔다. 2대독자인 청담이 출가하겠다고 하자, 그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던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한 것처럼 눈물을 흘렸다.

결국 청담은 세속에 묶여두려는 어머니의 강권으로 19세 처녀 차점씨와 강제결혼을 했다. 그러나 청담은 진주농고를 졸업한 뒤, 1926년에 고성 육천사를 찾아가 이듬해 5월 한영스님을 은사로 출가해버렸다. 이후 청담은 한영스님을 따라서 전라도 장성 백양사로 가 무섭게 정진했다. 해인사로 가셔도 목숨을 걸고 고행했다. 청담은 불과 몇 년 만에 전국의 절에서 초창법사로 부를 만큼 유명해졌다. 1930년에 진주의 한 절에서도 그를 불렀다. 낙성법회에 법사로 초대받아 갔다. 그때 속가 어머니가 소문을 듣고 찾아와 청담에게 매달렸다.

“시님, 가문 이름 써야 하나니 심어놓고 가시오.”

청담은 어머니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속가 아내와 하룻밤을 보냈다. 불쌍한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지옥엔들 가지 못하리! 하는 마음으로 속가를 들렀던 것이다. 그러나 수행자로서는 파계가 분명했다. 청담은 죄업을 씻기 위해 기약 없는 참회와 인욕수행을 했다. 덕숭산 정혜사, 오대산 적멸보궁, 설악산 봉정암, 묘향산 보현사를 거쳐 수월선사를 찾아 북간도까지 올라가 수행했다. ‘눈 위에 피 묻은 발자국이 있으면 청담스님의 것’ 이라고 수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때도 그 무렵이었다. 마침내 청담은 35세에 견성의 노래를 불렀다.

모든 부처와 조사는 어리석기 그지없어
어찌 현학의 이치를 깨우쳤으랴.
만약 누가 나에게 한 소식 한 바를 묻는다면
길가에서 있는 고담이 서쪽으로 기울었다 하리라.

대연거사는 노스님을 따라 축석루까지 나갔다가 다시 호국사로 돌아왔다. 축석루에는 남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서너 명 있을 뿐 진주성 전투의 비장한 그림자는 흔적도 없었다. 호국사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노스님이 대연거사에게 보여 줄 것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청담스님이 속가 부인인 차씨에게 보낸 편지를 가지고 있어. 말씀이 절절하여 내 바깥에 담고 다니지.”

“진본입니까?”
“영인본이야. 진본이면 어쩔고 사본이면 어때. 절절한 내용이 중요하지.”

대연거사는 노스님에게 편지를 받아 읽었다. 편지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아내를 불문으로 인도하려는 청담스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 동안 염불공부 잘해서 죽을 때에 귀신들에게 끌려서 삼악도에 가지 아니하고 극락세계의 아미타불 회상으로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모진 병 앓고 똥이나 싸고 정신없이 집귀신



그림 · 최문정

들에게 끌려가서 무주고혼이 되어서 밤낮으로 울고 천만 겁으로 돌아다니면서 물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 불쌍한 도가비 귀신이나 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 늙어서 서산에 걸린 해와 같이 금방 속 넘어가게 될 형편이 아닙니까. 살림걱정, 아이들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다 해봐 보살에게는 쓸데없는 헛걱정이오. 죄업만 두터워질 뿐이니 다 제쳐놓고 염불공부나 부지런히 하시오. 앞날이 급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살이나 얼마 안 있어 우리들이 다 죽어서 업을 따라서 제각기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 아닙니까. 부디 쓸데없는 망상은 다 버리고 염불만 부지런히 하셔라지요. 곧 떠나게 될 인간들이 제 높은 줄 모르고 망상만 피우고 업만 지으면 만경의 고생을 어찌 다 감당할 것이오. 극락세계만 가면 우리가 만날 사람은 다 만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 집어치우고 자나 깨나 나무아미타불, 급합니다. 부탁입니다. 절하고 뵙니다. 늙은 중 합장>

“스님께서서는 왜 청담스님의 편지를 가지고 다니니까?”

“청담스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보았어. 하지만 이보다 더 곡진한 청담스님의 마음을 본 적이 없지. 옛 아내에게 죄업 씻고 극락에서 만나자고 비는 편지가 아닌가. 아내의 근기를 알기에 나무아미타불을 외라고 하고 있지 않겠는가?”

“청담스님의 보살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오래 전에 돌아가셨지. 속가 친구에게 들었어.”
대연거사는 갑자기 노스님의 과거가 궁금했다.

“스님께서서는 출가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요.”
“상주에서 어린 나이에 한약방 했지. 해방 되던 해에 출가했어.”
“제가 있었습니까?”

“ 극락만가면 만날 사람 다 만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집어치우고 자나 깨나 나무아미타불 ”

노스님이 틀니가 빠질 만큼 소리 내어 웃었다.

“허허허.”
“스님, 왜 웃으십니까?”
“수행을 하면 다 알 수 있어. 깨진 수행자는 뉘히 알고 있으니 물을 것이 없어. 묻는 것이 많은 걸 보니 많이 어려서구먼.”

그래도 대연거사는 노스님의 과거를 알고 싶었다.
“스님께서서는 아무래도 청담스님과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알고 싶다면 다 얘기해 주지.”

1943년 초파일에 청담스님이 속리산 북천암에서 상주경찰서로 연행된 지 한 달 후였다. 기미년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청담스님이 수월스님을 친견하러 북간도로 간 적이 있는데, 일본행사들은 청담스님이 독립지사를 만나지 않았나 하고 스님의 북간도행을 의심했다. 상주경찰서로 끌려간 청담스님은 운몽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모진 고문을 당했다.

고문의 후유증은 오래갔다. 그러나 속가 부인인 차씨의 정성스런 병구완으로 청담스님은 차츰 기력을 회복했다.

“그때 내가 청담스님을 진맥하고 약을 지었지. 차씨 부인과는 고향이 같아. 게다가 나는 청담스님의 인품에 반해 약값을 받지 않았어.”

“그런 인연으로 청담스님의 제자가 되었군요.”
“그때는 청담스님께서 상좌를 받지 않았어. 입산 출가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반대를 했지. 결혼한 아내가 있다고 하니까 아내를 부처님처럼 받들고 살라고 했어.”

“당시 태고종 스님들은 취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출가한 운몽으로 버리는 것이야. 남김 없이 버리는 것이 출가야. 청담스님께서서는 반대를 하시느라 방편으로 말씀했던 거지.”

그래서 노스님은 피를 냈다며 웃었다.
“허허허. 청담스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려 결망 속에 아내의 치마와 저고리를 넣고 입산 출가했지. 어느 날이던가, 그것도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 태워버렸어.”

“청담스님께서 왜 출가를 반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나무라가 불쌍해서 그랬겠지. 청담스님도 속가 부인 때문에 인간적으로 괴로웠을 거야. 아마도 그래서 반대하셨겠지.”

대연거사는 노스님이 청담스님의 편지를 바람에 날고 다니는 까닭을 어렵듯이 이해했다. 자신의 속가 부인도 사랑했지만, 결국 한약방을 하던 노스님은 출가하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바람에 날고 다니던 속가 아내의 치마와 저고리를 태워버린 것을 두고 짐작해 보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거나 노스님이 한 소식을 했음이 분명했다. 대연거사는 노스님에게 삼배를 하고 헤어졌다.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총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우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정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 정진안내
- 철야 응맹정진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우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태도를 배우려면
물을 비어 대두하여
영기가 내려와도 우지를 막지아라.
물꽃이 나타날 때 그려가 도어아야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해암대종사 법어 -

해인사 원당암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감원 복산 원각